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ONLY EVER HER
가제 : 유일한 목격자
저자 : Marybeth Mayhew Whalen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5월 7일
분량 : 298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



- * “인물들이 끌고 가는 서스펜스의 힘으로 모든 단어를 쉴 새 없이 흡수하면서 끝까지 읽었다.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로빈 카(Robyn Carr)
- * “제각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과 그 삶을 보면서 소설 속 작은 동네 구성원 전체의 관계가 서서히 연결된다. 따뜻한 인물들이 가득한 매력적인 미스터리” – 「커커스 리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평온한 작은 동네 루들로가 화창한 6월의 첫 날 성대하게 열릴 결혼식 준비로 들쭉인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아름다운 예비신부 애니는 특별한 이유로 루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고, 토박이 주민들은 물론 새로 이사온 사람들까지도 가장 먼저 애니의 이야기부터 접할 정도였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애니의 행복을 바라게 된 건, 23년전 애니가 겨우 세 살 때 엄마가 살해됐기 때문이다. 이후 이모 손에 자란 애니가 마침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결혼식을 하게 되었으니 가족들, 친구들 모두 합심해서 즐겁게 힘을 보탠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결혼식이 코앞이던 어느 날, 애니가 실종된다. 그리고 모두가, 그 실종이 여느 신부들이 겪는 결혼 직전의 혼란스러움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확신한다.

애니를 비롯해 루들로 주민 전체를 들쭉이게 한 소식은 하필 결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들려오기 시작했다. 애니의 엄마, 리디아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코델 루이스가 뒤늦게 무죄로 밝혀져 풀려난다는 소식이었다. 무려 23년이나 옥살이를 하고 자유의 몸이 된 그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그 억울함과 증오를 다 쏟아낼 대상은 단 한 명, 애니였다. 코델과 리디아는 수시로 만났다가 헤어졌다 반복하던 연인이자 절친한 친구였고, 리디아가 싸늘한 시체로 숲 한가운데서 발견된 날, 전날 밤 늦게까지 코델이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세 살짜리 꼬마였던 애니는 다음 날, 얼마나 혼자 돌아다녔는지 흙투성이가 된 파자마 차림으로 숲 속 캠프장 주변을 서성이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구조됐고, 리디아는 텐트 근처에서 목이 졸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유일한 목격자인 애니가 또렷한 발음으로 코델 삼촌과 함께 캠프를 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그를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로 수사 방향이 확실히 결정타가 되었다. 어린 딸과 함께 굳이 외딴 숲에서 캠핑을 하겠다는 리디아를 말릴 수 없어서 텐트 설치하는 것까지만 도와줬다는 그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애니는 타이슨이라는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통해 최근 코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가 결혼식 직전에 풀려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애니가 불안해했던 것처럼, 그가 출소하자마자 애니를 납치라도 해간 걸까? 하지만 애니의 실종 이후, 주변 사람 모두가 조용히 간직하고 있던 남모름 비밀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뜻밖의 관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애니의 유일한 식구가 되어준 이모 페이는 동생 리디아의 살해 소식을 듣자마자 딸 클래리를 데리고 버지니아에서 단번에 달려왔다. 오토바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애니의 생부 쪽은 가족이 없어 당분간 애니와 리디아가 살던 집에서 조카를 돌보기로 마음먹은 것이 어느덧 23년 전 일이 되고 사람들은 정 많은 이모가 조카를 위해 희생했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페이 입장에서 애니는 목숨을 구해준 동아줄이었다. 매일 폭력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딸을 지키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와 안전하게 머무를 장소, 피난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리디아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애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페이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코델 루이스의 유죄를 믿었고 당시 담당 형사였던 할과도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다. 유부남에 자식들이 있는 사람이라 대놓고 연애를 하지는 못했지만 묘한 기류는 계속 이어졌고 애니의 실종 사건을 이제 베테랑 형사가 된 할이 수사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른다.

애니에게도 그런 은밀한 친구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 루들로에 처음 전학 온 케니는 짓궂은 아이들 틈에서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하고 이유 없이 놀림을 당했는데, 그 때 나서서 케니를 도와준 사람이 애니였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예쁜 소녀, 불운한 과거가 있는 그 유명한 아이가 편을 들어준 덕분에 고달픈 뻘뻘했던 케니의 학창시절은 안정을 되찾았고 케니는 이미 그 때부터 애니에게 폭 빠져 있었다. 애니 역시 그를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대했지만, 굴레처럼 벗어날 수 없는 엄마의 살인사건을 다 잊고 완전한 새 출발을 꿈꾸는 열망이 너무 강했던 애니는 뜬금없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두 사람의 또 다른 고교 동창인 로렐은 오랜 꿈이었던 기자가 되어 대도시로 떠났지만 거둬들인 실패와 좌절만 안고 루들로로 돌아왔다. 별볼일 없는 지역 신문에 들어간 로렐은 코델의 석방과 리디아의 살해사건을 책으로 써서 다시 한 번 명성을 날릴 기회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애니와 주변 사람들을 취재하기 시작한다. 만약 코델이 진범이 아니라면, 누가 리디아를 죽였을까? 애니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고 리디아의 시체가 발견된 곳까지 함께 간 것으로 드러난 케니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치밀하게 짜인 구성이 돋보이는 스릴러다.

<저자 소개>

소설가 메리베스 메이휴 웰른(Marybeth Mayhew Whalen)은 여성 소설 사이트 'She Reads'의 공동 창립자로도 활동해왔다. 전작 『The Things We Wish Were True』는 7개 언어로 번역되고 종이책, 전자책 합산 65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

제목 : THE RESISTERS

가제 : 저항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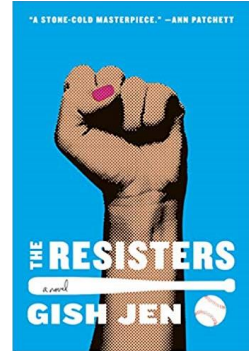
저자 : Gish Jen

출판사: Knopf

발행일: 2020년 2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SF



- * “디스토피아 소설이 경쾌하고 섬세하면서 매력적일 수 있을까? 야구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저자는 ‘그렇다!’고 답한다” - 『The Grammarians』의 저자 캐슬린 신
- * “가족과 야구, 미래, 그 이상의 것들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이자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다” - 『The Chalk Artist』의 저자 알레그라 굿맨

그리 머지 않은 미래, 말로 지시만 내리면 자질구레한 집안일부터 중요한 업무 처리까지 로봇과 AI가 전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오토아메리카’는 땅도 사람도 절반으로 나뉘어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영토는 이제 절반만 예전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물에 잠겨 있다. 선택된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른 곳들보다 지대가 높아 침수 위험도 거의 없고 인공지능이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게 활용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잉여’라 불리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물에 다 잠긴 곳에서 섬처럼 떠 있는 배 위에, 혹은 질척한 늪과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는 저지대 물가에서 살아간다. 한 때 교수였지만 이제 일자리를 잃고 잉여 중에 잉여가 된 그랜트와 엘레노어 부부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임신과 출산의 기회에 선물처럼 찾아온 딸을 맞이한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한참을 인큐베이터에 의존한데다 황달도 심하고 심장에서 잡음까지 들려 엄마아빠를 노심초사하게 만든 외동딸 그웬은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된 후부터는 그런 허약한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다 잊어버릴 만큼 단단한 아이로 자랐다. 단단하다 못해 아빠인 그랜트의 눈에는 이미 조그마한 딸아이가 ‘천하무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 만큼 튼튼하고 쾌활했다. 하지만 병약하던 아이가 건강해진 것에 만족한 부부는 그웬이 ‘황금 팔’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심상치 않은 조짐은 2층 아기 방의 높은 요람에서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던 때부터 시작됐다. 대부분의 집들이 그렇듯 그랜트와 엘레노어는 귀엽고 폭신한 솜 인형을 여러 개 요람 안에다가 넣어줬는데 요람 밖으로 인형을 집어 던지는 힘과 정확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또래 아기들처럼 바닥에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웬은 유난히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아무지게 활용해서 그 작은 손에 인형을 꼭 쥐고 열린 방문을 통해 1층까지 이어진 계단 아래를 정확히 조준했다. 잠시만 다른 일을 하고 돌아서면 그웬이 던진 솜 인형들이 계단 아래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부부는 다른 일은 몰라도 그 인형들을 끌어 안고 다시 그웬에게 가져다 주는 일만은 절대 로봇에게 맡기지 않

았다. 방 닦는 로봇, 창문 청소하는 로봇, 얼마 전까지 그랜트가 영어 문법 교사로 일할 때는 수업 준비부터 어머니께 쓰는 적절한 이메일까지 한두 마디 지시면 다 해주는 오토 아메리카가 되었지만 내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기회까지 기계에 맡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두 사람은 그웬의 재능이 그냥 감탄만 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님을 깨닫는다.

‘선택된 자들’의 땅에서 남아도는 저급한 식량을 배급 받고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에 점수가 매겨져 그에 따라 은행 대출, 사는 집, 생활 수준까지 다 정해지는 팍팍한 잉여들의 사회에도 어린 야구팀은 있었다. 문제는 생산성 없는 활동은 아예 법으로 금지된 탓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운동장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구에 목이 마른 아이들은 시에서 허가해준 지하 공터에서 그 열정을 해소하곤 했는데, 그웬을 데리고 그 허름한 연습 장소를 처음 접한 그랜트와 엘레노어는 큰 충격을 받는다.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된 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광경을 본 엘레노어는 전제군주 시대보다 더 억압적인 체제와 늘 맞서온 불 같은 성미를 제대로 발휘하여 이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기로 결심한다. 그 사이, 그웬의 실력은 모두의 예상대로 일취월장하고 그웬이 투수로 뛰는 경기마다 압도적인 승리가 줄을 잇자 아예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선택된 자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한다. 마침 오토 아메리카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막강한 위력을 과시해온 ‘차이나-러시아’를 물리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선택된 자’들은 그웬을 야구 대표팀에 영입하려고 한다.

그웬의 인지도가 높아지자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를 야구 연습 장소로 제공한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맞선 엘레노어의 소송 사건도 자연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숨죽여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급급하던 잉여 사회에서 두 모녀가 야구장에서, 법정에서 각각 벌이는 싸움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네티 이모’라 불리는 감시 프로그램이 ‘편리함’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내세워 잉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살이 기록하고 평가하는데도 거부조차 못하는 폭압에 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 둘 깨어난다. 급기야 엘레노어가 부당하게 체포되는 사태까지 일어나자 중립을 지키던 사람들까지 가세해 ‘자유’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국가가 빼앗을 수 없다는 뜨거운 외침은 더 큰 함성이 된다. 즐기는 것은 금지되고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만 높은 지위를 얻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토 아메리카에서 대표팀에 우승을 안겨줄 영웅 같은 존재가 된 그웬 덕분에 엘레노어는 가까스로 풀려나지만, 분열된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열띤 싸움이 자칫 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인간성, 그리고 인간이기에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가치가 이상한 법에 휘둘리는 끔찍한 사회를 무대로 부모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고찰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한 소설이다. 상상력과 강력한 흡입력이 돋보인다.

<저자 소개>

기쉬 젠(Gish Jen)은 『The Love Wife』, 『Who's Irish』, 『The Girl at the Baggage Claim』 등을 쓴 소설가로 래넌 문학상(Lannan Literary Award)과 미국 예술과학협회가 수여하는 밀드레드 앤 해롤드 스트라우스 리빙 어워드(Mildred and Harold Strauss Living Award)를 수상했다.

제목 : BLACK LIGHT

가제 : 검은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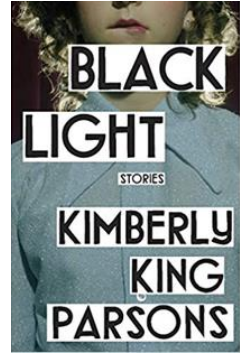
저자 : Kimberly King Parson

출판사: Vintage

발행일: 2019년 8월 13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단편집



★ “지저분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너무나도 풍성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 이 책의 모든 점이 좋았다” – 『Her Body and Other Parties』의 저자 카르멘 마리아 마카도

★ “예측할 수 없는 폭죽처럼 자기 자신에게, 타인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번쩍이는 빛을 선사하는 힘이 느껴지는 책. 여기 실린 모든 이야기가 굉장하다” – NPR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진 않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 스스로도 들여다보기가 두려울 만큼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자리한 그 가려진 것 하나 없는 감정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작가가 데뷔작으로 처음 선보이는 12편의 단편에는 감성적인 시선이나 꾸미려는 노력이 일체 배제된, 당황스러울 정도로 날 것 그대로 묘사된 그러한 욕망이 그려진다. 첫 사랑의 아픔, 너무 반복되어 지루해질 지경에 이르는 자기 혐오의 습관, 중독이 가져오는 처참한 결과, 결혼에 관한 허황된 생각들, 그리고 어린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마법 같은 일들과 그 환상이 무참히 깨지는 환멸의 순간이 결국 오고야 마는 현실까지, 작가는 현실과 진실을 가차없이 파고든다. 태양이 이 글대는 텍사스 고속도로, 공기마저 차가운 가정집 부엌 한 칸, 딱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외딴 모텔, 질식할 것 같은 사립학교 기숙사 방안까지 다양한 공간, 분위기, 환경 속에서 자신과 다른 누군가의 요동치는 감정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처럼 몽환적이기도 하고 폭소를 유발하기도 하는 저자의 멋진 문장력과 어우러져 계속해서 책장을 넘기게 한다.

‘장’이라는 해부학적인 의미보다는 배짱 혹은 만족을 모르는 식욕을 의미하기도 하는 <Guts>라는 제목의 단편은 의대에 다니는 남자와 연애하는 세일라의 이야기다. 그저 그런 회사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리셉션 직원으로 지루하게 사는 세일라는 이제 수련의 생활을 시작한 팀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롭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환자들 속에서 늘 부족한 잠과 싸워야 하는 생활부터 유독 진단이나 치료가 까다로웠던 환자들, 회복되기만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고 전달할 때의 심정까지 세일라의 생활 반경에서는 접할 일이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팀이 겨우 시간을 내서 데이트할 때마다 굳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고는 불이 꺼지자마자 꿈아떨어져도, 로맨틱한 표현보다 해부학적인 용어를 과하게 써도 세일라는 전혀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팀이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질수록 왜 그가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점점 의혹이 든다. 세일라는 평균을 훌쩍 넘어서서 꾸민 몸매에 혼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엄청난 주문량에 놀란 웨이트리스가 대놓고 놀린 적이 있을 정도로

뛰든 과식하는 타입이었다. 팀의 입에서 ‘몸집’이라는 단어라 튀어나온 어느 날부터 세일라의 의
혹은 날로 깊어가고 결국 폭발한 불안감은 우스꽝스러운 사태를 자초하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여우들(Foxes)>에는 딸 아이가 직접 지어낸 동화에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는 한 여성이 등
장한다. 아이의 이야기에는 한밤중에 숲에서 길을 잃은 멋진 기사가 등장하고, 그를 도와주는 동
물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 술 한 잔을 들고 곁에 앉은 엄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얼마 전 완전히
남남이 된 남편을 떠올린다. ‘바보’로만 지칭되는 전 남편과 어릴 때 한 동네에 살면서 처음 만나
특별히 사랑하는 감정도 없이 결혼을 했던 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가 어쩌다 얻어 걸린 사업
아이디어로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돈을 벌게 된 일,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술을 좋아했던 자
신을 알코올 중독자라도 된 것처럼 무시하고 막말을 하던 날들, 그리고 딸에게 깊은 애정을 보이
지 않던 매정한 모습까지, 엄마가 회상하는 지난 결혼생활은 아이의 동화 속에서 형제 없는 시커
먼 적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 기사의 모험과 나란히 전개된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출한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지금과 같은 결말을 아이가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 묘한 이야기는
엄마가 속으로 생각하는 아이 아빠의 치졸하고 뻔뻔한 거짓말들 계속 겹쳐진다.

책의 제목과 동일한 <검은 빛(Black Light)>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모을 만큼
키도 크고 몸매도 모델 뽀치는 여학생에게 완전히 폭 빠진 같은 학교 학생이 등장한다. 학교 농
구팀의 포인트 가드로 뛰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정신없이 사랑에 빠진 주인공은 모욕적인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쫓아다닌 끝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같은 그 여학생의 마음을 얻는데 성
공한다. 하지만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지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게,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하게 끝나고 만다. 만사를 다 꺾고 있는 척척박사처럼 알뜰게 원치도 않는 연애 상
담을 자처한 형의 예언처럼 그녀는 금세 주인공에게 질려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자고 선언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 아픔보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 함께 있을 때 보여줬던
사랑스러운 모습이 확 사라진 상황에 더 충격을 받은 주인공은 갈피를 잃고 혼란에 빠진다.

그 밖에도 동네의 물고 물린 정치적 이익 관계를 탐색하면서 예측 불허인 엄마를 염려하는 자매
의 이야기를 그린 <완곡한 거절(The Soft No)>, 예뻐지려고 갖은 애를 쓰던 두 여성이 폭력과 통
제, 극심한 불신의 탓에 스스로 걸려드는 파국을 보여주는 <우린 그렇게 타고나지 않았잖아> 등
집착과 충동에 뒤따르는 상처를 때로는 측은하게, 때로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또 때로는 재미
있는 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위트 넘치는 눈빛으로 바라본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이런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으로 재구성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도 못했을 감정들을 정 종앙에 놓
고 그대로 보여주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저자 소개>

김벌리 킹 파슨스(Kimberly King Parsons)는 「Best Small Fictions 2017」, 「New South」, 「Black
Warrior Review」 등에 글을 기고해왔다. 「Columbia: A Journal of Literature and Art」 편집장으
로도 일한 경력이 있다. 2020년에 장편소설 The Boiling River가 출간될 예정이다.

제목 : A DAY LIKE TODAY

가제 : 오늘 같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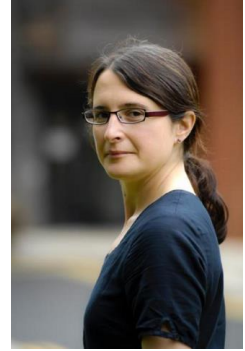
저자 : Sarah Moss

출판사: Picador

발행일: 2020년

분량 : 101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9개 출판사가 참여한 경매를 거쳐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

★ “사회적 비판에 신비로운 느낌을 녹여내는 일을 가볍게 해낼 줄 아는 이례적인 작가” – NPR, 전작 『Ghost Wall』에 대한 서평

맑은 날보다 흐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 더 많은 한여름, 스코틀랜드 외곽에 자리한 숲 속에 휴가객들이 모여들었다. 가족 단위로, 연인끼리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각자 배정된 작은 통나무 오두막에 짐을 풀고 대자연 속에서 길게는 몇 달, 짧게는 몇 주 동안 지낸다. 물론 와이파이가 신호를 잡으려면 한참 걸거나 차를 몰고 근처 술집에 가야 하고 공동 세탁실이 있긴 하지만 빨랫감은 그냥 손으로 대충 빨아서 널어놓는 편이 낫다는 내 집 같지 않은 불편함도 있긴 했다. 밤이 되면 생각보다 공기가 훨씬 더 쌀쌀하다는 것 정도는 예상하고 왔지만, 이런 휴가에서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어둠이 내려오면 온 숲이 찌렁찌렁 울릴 만큼 음악을 틀어놓고 밤새 파티를 벌이는 가족이 나타난 것이다.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개성 있고 독특한 분위기의 글로 호평을 받아온 작가는 하필 같은 시기에 이 개념도 예의도 없는 가족들 근처에 머물게 된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천천히 고조되는 분노를 세밀하게 잡아낸다. 각자가 처한 상황, 성격, 그리고 휴가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가족, 연인간의 미묘한 관계 구도에 따라 같은 상황을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주는 재미와 팽팽한 긴장감은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결말까지 정교하게 그려진다.

굳이 서로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지는 않지만 어느 오두막에 어떤 사람들이 묵고 있는지, 그들이 대강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 모두 대강은 다 알고 있다. 우산이나 비옷을 입고 나가기도 머뭇거려질 만큼 굵은 비가 쏟아지는 새벽에 저스틴이 목에 착 달라붙는 조깅 복장을 갖추고 새벽부터 달리기를 한다는 것도 아직 한밤중인 저스틴의 두 아이나 남편보다 아침잠 없는 인근 오두막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얼마 전 심장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잡음이 포착되어 더 이상은無理해서 달리기를 하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야 직성에 풀리는 저스틴은 전날 저녁 새벽까지 울리던 음악 소리를 떠올리며 밖으로 나간다. 문제의 오두막과 다른 방향에서 가까이 자리한 올라네 집은 아예 한 숨도 못 잤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이 바짝 곤두서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엄마와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길이 화를 내는 아빠,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느라 함께 밤을 꼴딱 샌 올라와 남

동생 잭은 다음 날, 숲과 바로 붙어 있는 해변에서 생김새도, 옷차림도, 그리고 행동도 너무 낮선 또래 소녀를 만났다. 그 시끄러운 오두막에서 지내는 유일한 아이, 비올레타였다.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잠깐만 나갔다 와도 발이 흠뻑 젖는 날씨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광 나는 구두에 새하얀 스타킹을 신은 비올레타는 혼자 다른 세상에서 온 아이 같았다. 새카만 머리카락, 새카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용수처럼, 혹은 나비처럼 가뿐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올라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다. 뽀뽀한 데님 스커트를 입은 비올레타는 어디서 왔냐는 올라의 물음에 글래스고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올라는 대뜸, 간밤에 온 숲을 소란스럽게 한 소음은 예의도 아니고 모두의 휴가를 망친 일이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비올레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올라는 비명처럼 뻥뻥 울던 어느 오두막의 아기들 울음 소리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을 서성이던 노인들, 그리고 엄마와 아빠처럼 꼭 닫힌 벽 뒤에서 짜증을 내야 했을 사람들을 떠올리며, 해변을 가득 채운 자갈을 응시한다. ‘꼭 맞는 크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도통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휴가를 떠난 본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중인 연인 밀리와 조쉬, 그리고 부모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이 지긋지긋한 오지까지 끌려와서 매사에 불만투성이인 알렉스, 베키 남매의 가족까지 모두 전날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 염려한다. 다들 잠자리에 들 시각, 폴란드인들로 모두가 추정하는 그 오두막 앞으로 새로 온 차량들이 속속 도착하고 손에 술병을 든 손님들이 그 집 대문을 두드리는 풍경을 저스틴도, 예민한 엄마 걱정엔 창문 앞을 떠나지 못하던 잭도 목격한다. 아니나다를까, 모두의 우려는 현실이 된다. 광광 울리는 소음은 적막한 숲을 찌렁찌렁 울려대고 드럼 소리에 바닥까지 흔들리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 울상이 된 엄마를 달래던 잭의 아버지는 찾아가서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올라를 데리고 대문을 나섰다. 잭은 외투를 꺼 입던 누나가 주머니에 뭔가 슬쩍 집어넣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무슨 속셈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머뭇대며 폴란드인 오두막 현관에 도착한 아버지가 풍채 좋은 비올레타 아빠가 건넨 맥주병을 엉겁결에 받아 쥐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지켜본 잭은 머리를 울리던 음악소리를 웬지 흥겹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그 오두막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아나고 인근 오두막 전체에서 사람들이 잠옷 바람에 맨발 차림으로 뛰쳐나오는 대소동이 벌어진다. 모두가 가까스로 탈출하지만 비올레타만 이미 찻더미로 변해버린 집안에서 끝내 나오지 못한다. 작지만 뚜렷한 인물들의 미세한 반응을 미세하게 집어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투명하게 마주보게 하는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새라 모스(Sarah Moss)는 여섯 편의 소설과 2013년 RSL 온다체 상(Ondaatje Prize) 결승에 오른 회고록 『Names for the Sea』를 쓴 작가다. 소설 『Night Waking』은 2011년 픽션 언커버드 어워드를 수상하였으며 『Bodies of Light』, 『Signs for Lost Children』, 『The Tidal Zone』은 모두 웰컴 상 결승에 올랐다. 작년에 나온 『Ghost Wall』은 2019년 여성 소설상 후보로 선정됐다. 현재 워릭 대학교 문예창작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NON-FICTION

제목: TIMELESS TEACHINGS

가제: 고양이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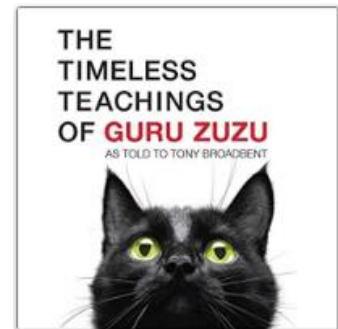
저자: Tony Broadbent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9년 5월 7일

분량: 136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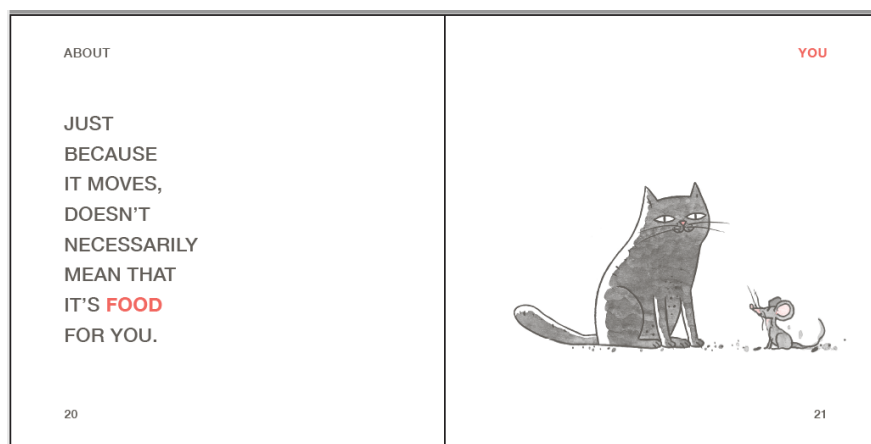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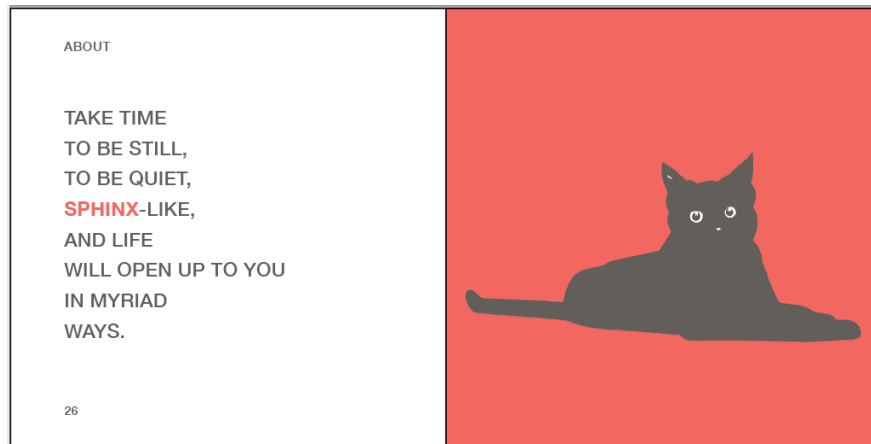
장르: 자기계발



*** 나와 다른 사람, 인생에 관한 깊은 통찰력과 가르침을 선사하는 최고의 스승, 고양이 - 짝막한 글과 포근한 일러스트로 구성된 자기계발서**

집에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면 훌륭한 스승을 한 분 모시고 사는 것과 같다. 그저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댈 수 있는 반려동물을 넘어, 고양이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1946년 영화 ‘멋진 인생’에 나온 ‘주주’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인 봄베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노자와 선종에서 나온 “제자가 준비를 마치면 스승이 나타난다.”를 떠올렸다고 한다. 이 책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해온 저자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깨달은 고양이의 지혜를 페이지마다 귀여운 그림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고양이의 영리한 행동들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고양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시계를 볼 줄 아는 것도 아닌데 새벽 4시만 되면 알람 시계라도 맞춰 놓은 것처럼 침대로 올라와 함께 사는 인간의 입에 앞발을 척 올리기도 하고, 동물병원에 예약해둔 날이면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고 내빼려고 하는 고양이의 놀라운 눈치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는 삶에 관한 교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지도 모른다. 스팅크스처럼 눈만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고양이는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때 아무 소득 없이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갈구하거나 표현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고양이의 독특한 매력은 사랑한다고 해서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님을 생각하게 한다. 필요할 때가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 더 많은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은 생각과 감정을 전부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한다. 저자는 고양이와 일상을 함께 하면서 느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포착해서 굳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 유명한 대가와 마주 앉지 않아도 고양이를 키우는 것만으로 삶과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주주 선생님에 관하여
당신에 관한 가르침
사랑에 관한 가르침
타인에 관한 가르침
인생에 관한 가르침

<저자 소개>

토니 브로드벤트(Tony Broadbent)는 수상 경력이 있는 저술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저서로는 『The Smoke』와 『The Beatles in Liverpool, Hamburg, London』 등이 있다.

제목 : STRANGE HARVESTS

가제 : 7가지 진귀한 상품을 찾아서

저자 : Edward Posnett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9년 8월 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교양



- * “여행과 문화, 자연사, 민족지학, 경제 분석이 멋지게 조합된 예리한 책. 시장의 탐욕에 내포된 파괴성과 인간, 그리고 인간 그 이상의 조화가 나타나는 드물고 희망적인 사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 저술가 로버트 맥팔레인(Robert Macfarlane)
- * “섬세함과 갑작스러운 드라마가 공존하는 이야기. 정치, 문화, 생태학적인 복잡한 상황이 모두 한데 얹혀 있다” – 「가디언」

산업화가 진행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돈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속도와 규모도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순식간에 놀랍도록 정교하고 섬세하게 수많은 상품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에도 자연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수확’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진귀하고 희귀한 상품에는 희소성과 눈을 휘둥그렇게 만드는 가격에 가려진 훨씬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 바로 어떻게든 더 많이, 더 빨리 얻으려는 인간의 욕심이 선을 넘어 공존의 균형을 깨면 기꺼이 그 귀중한 물건을 내어주던 자연과의 계약은 깨지고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를 공부하고 온종일 시장 분석과 기업 평가 보고서에 매어 살다가 우연히 접한 깃털 오리들의 생태에 폭 빠져 여행을 시작한 저자는 이 책에서 바로 그 균형을 엄격히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자연의 선물 7가지를 소개한다. 깃털오리의 털, 라마의 일종인 비쿠냐라는 동물의 털로 만드는 울 섬유, ‘바다 비단’으로도 불리는 족사, 특별한 야자수 씨앗인 타구아 너트로 만드는 ‘식물 상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루왁 커피, 비료로 쓰이는 바닷새의 배설물 ‘구아노’, 그리고 식재료로 쓰이는 새의 둥지까지,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상품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페루 등 지구상에서 가장 찾아가기 힘든 야생 오지부터 도시 한복판까지 이러한 상품들의 특성과 용도만큼 다채로운 장소를 배경으로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수확 농민들과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자연에서 소비자의 손에 전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전 과정도 보여준다.

아이슬란드 북서부, 인구가 극히 적은 해안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100여 년 전부터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깃털 오리와 조화롭게 살아간다. 오리보다는 펭귄에 더 가까운 살집 두툼한 이 덩치 큰 새의 몸에 잔뜩 자란 깃털이 특정한 시점이 되어 자연히 빠지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버려진 깃털을 수거한다. 이 털을 넣고 만든 다운점퍼 한 벌이 8,000 달러를 호가하는 엄청난 사치품이 된 이후, ‘골든 구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이 예민한 새들의 개체 수를 억지로

늘리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시도가 뒤따랐고 심지어 목숨 걸고 깃털을 최대한 수확하려는 무모한 자들의 소행도 나타났다. 저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망가뜨리는 이 어리석은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7가지 상품을 통해 명확히 보여준다. 역사와 여행기, 인터뷰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을 통해 경제만을 중시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변화하는 생태계와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즉 ‘리듬’을 잃지 않아야 인간도 자연도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특정 조개류가 다른 조개와 연결하려고 만들어내는 일종의 섬유다발로 만드는 바다 실크와 인공 재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식물 상아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다. 먼 옛날부터 단추, 조각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만큼 단단해서 상아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식물 상아는 타구아 넛이라는 야자수 열매를 쪼개면 나타나는 안쪽 과육이 원재료다. 그밖에 우리나라에서도 루왁 커피로 잘 알려진, 사향고양이가 기가 막히게 쓱쓱 골라내서 삼킨 최상급 커피 열매가 현지에서 어떻게 수확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관찰을 넘어 이러한 상품들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극소수의 뜨거운 관심을 얻게 된 이유와 경제적 가치 이면에 담긴 윤리적인 의미까지 깊이 있게 분석한 의미 있는 기록이다.

<목차>

머리말
깃털 오리
식용 새집
루왁 커피
바다 비단(족사)
비쿠냐 울
타구아 넛
구아노
맷음말

<저자 소개>

에드워드 포스넷(Edward Posnett)은 캠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런던 금융계에서 일했다. 저서로는 포들리 헤드/파이낸셜 타임스 에세이 상(The Bodley Head/Financial Times Essay Prize)을 수상한 『Eiderdown』이 있다.

제목 : HOW TO THINK STRATEGICALLY

가제 : 전략적인 사고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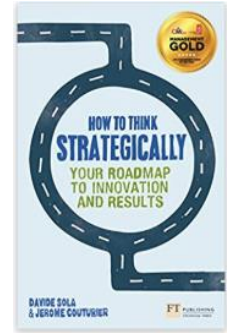
저자 : Davide Sola, Jerome Couturier

출판사: FT Publishing International

발행일: 2013년 10월 17일

분량 : 280 페이지

장르 : 경영



- ★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방법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업체 렌토킬(Rentokil) CEO, 앤디 랜섬(Andy Ransom)
- ★ “전략적 사고가 매일 마주치는 일상적인 해결과제보다 압도적으로 힘든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업체 바볼랏(Babolat) 대표, 에릭 바볼랏(Eric Babolat)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갑작스럽게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침착하고 날카로운 판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경력이 많은 사람,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내놓는 예측이라고 해서 전부 믿지 않는다. ‘전략적인 사고’로 통칭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든 성공을 강화하는 귀중한 촉매가 된다. 기업들이 찾는 인재란 눈 앞에 닥친 상황만 보고 복잡한 문제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며 확실한 길이 아니면 몸을 사리는 사람이 아닌, 위와 같은 전략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인재를 찾고, 또 스스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단순히 운이 따라서라고만 넘길 수 없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유럽 경영대학원에서 전략과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해온 두 저자는 총 6단계로 구성된 실천 계획에 따라 어떤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길을 안내한다.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는 어디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체적인 사업 전략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주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큰 성패가 달린 사업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생각과 행동이 모두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세부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전략적 사고가 큰 시스템 안에 다시 작은 시스템들이 모인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개념이 다소 험겁게 서로 엮인 커다란 덩치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전략을 처음 수립할 때 대부분 간과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요소들, ‘우수한’ 전략과 ‘영리한’ 전략의 차이점과 필요성,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보여준 대표적인 전략적 사고에서 찾을 수 있는 필수 원칙 네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순간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세부 기술, 대부분의 조직 문화에서 전략보다는 일이 순탄하게 굴러가게 하는 방법에만 주목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이 각 장마다

소개된다. 더불어 현 시점에서는 뚜렷하고 선명하지 않지만 그대로 두면 향후 사업과 업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미묘한 징후를 감지하는 법과 IBM의 CEO가 실제로 보여준 전략적 사고의 사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을 넘어 남다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열쇠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책 2부에서는 주어진 역할, 해결해야 할 과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발전시키고 이미 보유한 자신만의 재능을 더 성숙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총 4장에 걸쳐 제시된다.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것,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 양질의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방법, 리더십과 용기의 관계를 배울 수 있다.

자신은 물론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업 전체를 큰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수립 기술을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실질적인 부분까지 알려주는 지침서다.

<목차>

1부: 전략적 사고의 특성, 목적, 범위

- 1장. 당신은 전략적입니까?
- 2장. 영리함
- 3장. 큰 아이디어
- 4장. 전략적 사고를 위한 12가지 세부 기술
- 5장. 전략적 사고는 왜 드물까 (이하 생략, 총 9장까지)

2부: 개인과 대인관계의 기술

- 10장. 인식
- 11장. 어깨에 앉아 있는 천사, 양심
- 12장. 대화와 숙고
- 13장. 평범하지 ‘않은’ 리더가 되려면

부록 A-F

<저자 소개>

다비드 솔라(Davide Sola)는 핀란드와 인도, 이탈리아의 여러 경영대학원에서 전략과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해왔다. 업체 ‘3H Partners’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제롬 코투리어(Jerome Couturier)는 경영대학원 ESCP Europe의 부교수이자 업체 ‘3H Partners’의 공동 창립자다.

제목 : STORIES THAT STICK by Kindra Hall

가제 : 성공의 열쇠, 스토리텔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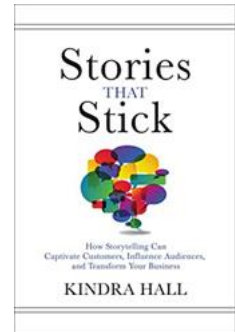
저자 : Kindra Hall

출판사: HarperCollins Leadership

발행일: 2019년 9월 24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 킨드라 홀은 이 책을 통해 누구든지 비즈니스 있어 필수적인 기술인 스토리텔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베스트 셀러 『The Power of Habit and Smarter Faster Better』의 저자 찰스 더히그

스스로 내 이야기의 주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사업과 삶이 바로 당신의 손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된다. 스토리텔링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최신의 방법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늘 듣게 되는 말이 되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스토리텔링은 고객의 마음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영업팀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경쟁사들로부터 고객을 지키는데도 활용된다. 완벽하게 배치된 흥집을 데 없는 이야기에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온갖 신제품이 매일 같이 쏟아지는 시대에서 고객들은 더 이상 물건, 서비스 자체만 보지 않는다. 제품과 서비스 그 너머의 이야기와 이미지가 고객의 마음을 매혹한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저자 킨드라 홀을 포함한 스토리텔링 전문가는 물론이고 유명 연사들이 직접 나서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간 이야기 구성을 소개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남들과 다른,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스토리텔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가치(Value)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고객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회사가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대상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객관적인 수치도 이야기가 뒷받침 되어야만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둘째, 창립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모든 사업 뒤에는 누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법이다. 이는 고객과 투자자들이 당신의 조직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과정에 활용될 것이다. 셋째는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대상에는 고객이나 투자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 직원, 계약자, 임시직, 프리랜서들이 회사를 점점 채워간다. 이들은 창립 멤버도 아니고 기존의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다. 무엇보다 기존의 멤버들만큼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기를 갖기도 어렵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목적에 관한

스토리텔링이다. 당신의 스토리텔링은 회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직원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한다. 이는 바로 직원과 내부 고객을 연계시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작업이다. 넷째는 고객에 대한 이야기이다. 잠재적 고객과 현재의 고객이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은 매우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다른 고객의 이야기만큼 예비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없다. 수많은 연구가 이미 고객 후기와 추천이 소비자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대해 훨씬 더 큰 힘을 행사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고객들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다. 홀은 실제 사례와 기업 이력, 독창적인 연구가 뒷받침된 일화 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기업들의 성패가 나뉘는지 보여준다. 홀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야기의 소재는 우리에게 이미 있다. 아직 해 본적이 없는 이야기를 해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홀은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스토리텔링 방법을 제시한다. 모든 사람, 모든 조직이 최소한 네 가지 이야기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

<목차>

서문

Part 1: 스토리텔링의 거부할 수 없는 힘

1. 비즈니스와 다리 사이의 격차, 그들을 가깝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는.
2. 그때 우리 뇌에서는
3. 이야기를 끝내주게 만드는 것

Part 2: 네 가지 필수적인 이야기- 모든 비즈니스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야기

4.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
5. 창립자에 대한 이야기
6. 목적에 대한 이야기
7. 고객에 대한 이야기

Part 3: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 당신의 이야기를 찾고, 공들여 만들어 이야기해보라.

8. 이야기 찾기
9. 공들여 만들어보기
10.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기

<저자 소개>

킨드라 홀 (Kindra Hall)은 수상 경력이 있는 전문 스토리 텔러이자 유명 연설가이다. Entrepreneur.com 에 글을 기고 하고 있으며 Inc. magazine 에 매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제목 : THE SELF-CARE SOLUTION

가제 : 나는 매달 건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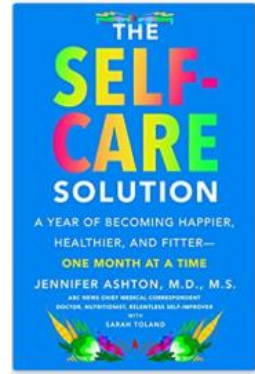
저자 : Ashton M.D., Jennifer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건강



*** 초판 10만 부 발행 예정**

*** 1년간 매월 한 가지씩 실천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 계획 - ABC 뉴스 의학전문 기자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인 저자가 직접 경험한 체계적인 좋은 습관 들이기 프로젝트**

건강에 좋다는 건 꼬박꼬박 다 찾아서 먹고, 부지런히 운동해도 기대했던 변화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심지어 다이어트도 딱히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일 때도 있고, 단순히 나이가 젊어서, 타고난 건강 때문에 그렇다고 넘기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꽤 있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해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힘든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쏟아지지만, 무엇을 선택해서 어디까지, 혹은 언제까지 실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저자는 건강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자신조차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답답했던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독특한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과학적으로 건강 개선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12가지 습관을 익히되, 1년 동안 매월 한 가지씩만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다. 딱 한 달만 술 마시지 않기, 딱 한 달 동안만 디지털 기기 멀리하기 등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대다수가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중요한 습관을 부담 없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요령이 소개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일부러 먹지 않는 음식들, 하룻동안 일하는 시간과 휴식을 취하는 시간, 몸을 얼마나 어떻게 움직였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는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오늘 하루만’ 특별히 과식, 과음을 하거나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식생활과 수면, 운동은 건강을 넘어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일주일이고 다시 한 달, 수년간 고정적인 생활 방식으로 굳어지기 쉬운데 그런 사실조차 크게 깨닫지 못한다면 건강해지려고 다른 노력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건강에 나쁜 습관이 한 가지라도 뿌리 깊이 자리를 틀면 건강과 행복을 마구 갉아먹는 씨앗이 된다고 설명한다. 하루 정도는 어쩌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생활이 수개월, 수년 간 지속되어 자신도 모르게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가 되면 체중 증가, 피로감, 지독한 입 냄새, 조기 노화,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본인은 왜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는지 깨닫지 못한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강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확히 입증된

좋은 습관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체감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 금세 지치고 그 중에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도 가려내기 힘들지만, 한 가지만 바꾸면 그 효과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설탕 줄이기, 잘 자기, 고기 덜 먹고 채소 많이 먹기 등 누구나 다 아는 이로운 습관을 딱 한 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키도록 구성된 이 책에서는 각 달에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주 단위로 세부 목표도 제공한다. 반드시 책에 나온 순서대로 따를 필요도 없고 한 달이 지나면 다음 달에 시도할 목표는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 어떤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각각의 습관에 내포된 놀라운 효과가 입증되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최고의 전문가들로 꼽히는 사람들이 제시한 팁을 사진, 도표 등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한다. 이미 성큼 다가온 새해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보면 좋을 만한 건강 관리법이 흥미롭게 소개된 알찬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1월은 술 없이 보내자

2월엔 팔 굽혀 펴기와 플랭크 운동

3월엔 명상

4월은 심장 건강의 달

5월에는 고기를 줄이고 식물을 많이 먹자

6월은 수분 보충의 달

7월엔 계단 오르내리기

8월에 배우는 마음챙김 기술

9월은 설탕 덜 먹는 달

10월엔 스트레칭

11월은 수면 건강을 챙기자

12월엔 많이 웃기

해결과제를 변화로 만들자

<저자 소개>

제니퍼 애쉬튼(Jennifer Ashton)은 ABC 뉴스에서 의학전문 수석기자로 활동하면서 산부인과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Life After Suicide』, 『Eat This When You're Expecting, Not That』 등이 있다.

제목 : PRAYERS FROM THE HEART

가제 : 기도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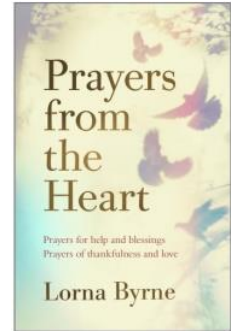
저자 : Lorna Byrne

출판사: Coronet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저자는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를 준다. 교회에서 제공하던 것이지만,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 「The Times」
- * “저자가 전하는 사랑과 연민, 용서, 그리고 ‘모든 나라와 가족의 평화’를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 - 「Irish Times」

태어난 순간부터 바로 곁에서 지켜주는 수호천사와 대천사들을 두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눈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신과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온 저자가 기도하는 법에 관한 책을 완성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가 절실해지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도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이 고민을 해소하고 기도의 힘, 무언가를 바랄 때뿐만 아니라 신과 천사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함께 설명한다. 어릴 때부터 천사와 신에게 들은 축복을 전달하는 저자의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저자는 희망과 힘, 용기가 가장 필요한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준다. 아이를 잃었을 때, 실연을 당했을 때, 몸과 정신이 다치거나 아플 때, 원치 않는 폭력에 힘없이 당했을 때와 같이 개인적인 불행과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원천으로서 기도의 힘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딱히 큰 고민이 없는 시기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원하는 곳에 거의 다 도달하면 더 큰 목표가 눈에 들어오고 그곳까지 올라오느라 지나온 일들이 결코 아름답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도달하느라 수고한 자신을 칭찬하기보다는 완료해야 할 남은 일들에 골몰하느라 불필요하게 엄격해지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저자는 힘든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는지는 중요치 않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소진된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크게 기쁘거나 슬픈 일이 없을 때도 기도를 하면 지나온 과정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소소한 성취와 보람을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있다. 신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더라도 인간의

마음과 정서적 상태가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입증됐다는 점만으로도 기도의 효용성은 충분하다. 저자는 기도에 딱히 정해진 원칙이나 규칙 같은 건 없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도 잡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일종의 견본이 될 만한 이야기를 각 장마다 소개한다. 기도란 그저 습관처럼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떠올리며 그 절실한 감정을 모두 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이 아니라 자신이 왜 기도를 올릴 만큼 신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세계 곳곳에서 수백 만 명과 만나 신의 은혜를 전해온 전령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에너지는 오직 기도를 통해 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상황 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보여준다.

<목차>

1. 기도의 힘을 빌어 신과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일
 2. 자연, 동물,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고 더 깊이 인식하는 일
 3. 당신에게 힘과 희망을
 4. 보호의 기도
 5. 인내와 회복력, 희망을 위한 기도
 6. 화목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하나님,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인생에서 찾은 길, 용기 있게 나아가기 위한 기도
 9. 또래가 주는 압박, 중독, 사랑하는 이를 돕는 일
 10. 나와 타인의 치유를 위한 기도
- (이하 생략, 총 21장까지 구성)

<저자 소개>

로나 번(Lorna Byrne)은 아기 때부터 천사를 보고 이야기를 했다. 이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천사와 신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고 있다. 저서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Angels in My Hair』와 『Stairways to Heaven』, 『A Message of Hope from the Angels』 등이 있다. 현재까지 쓴 책들은 총 27개국에서 출판됐다.